

전 남

강진 '길 막은' 가로수

비좁은 인도에 대형 소나무 심어 통행 불편 준공 한달도 안된 인도 파헤쳐 예산 낭비도

강진군이 가로수를 심는다면 준공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도로(인도)를 파헤치는 등 졸속행정으로 민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가로수 식재로 인도(人道)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게 돼 보행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19일 강진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강진을 서성리 강진의료원 앞 도로 370여m를 파헤친 뒤 8천600만 원을 들여 소나무 60여 그루를 심었다.

이 구간은 의료원 신축공사로 폐쇄되는 진입로를 대체(代替)한 도로로,

15여여원을 들여 지난 5월 초 준공됐다.

군은 이 과정에서 애초 계획에 없던 가로수 심기를 도로 개설 후 한달 만에 서둘러 시행했다. 그러나 너비가 1.5m에 불과한 인도 한 가운데에 높이가 4~5m가 넘는 소나무를 심고 소나무 버팀목까지 설치해 사실상 인도 구실이 불가능해졌다.

이 인도는 의료원을 오가는 환자 등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길인데도 무용지물이 됐다. 또 도로 개설 부처에서 보행권 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강행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군 관문으로 조경이 필요했다. 가로수 식재 장소가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인도에 심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민 김모(54·강진읍)씨는 "애초에 나무를 심을 계획이었다면 최소한 도로 공사와 함께 했어야 했다"며 "인도까지 가로막으면서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색으로 말하다

나주 천연염색문화 문화콘텐츠로 육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나주시 천연염색문화관(관장 장흥기)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주관한 '2009 지역우수문화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이야기, 특출한 인물, 전통을 이어온 축제, 관광 명소 등을 소재로 1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우수한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에서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나주시 천연염색문화관은 '색(色)으로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3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됐으며, 이달 안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들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제작기간을 거쳐 포털사이트 '네이버 웹툰'을 통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20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연재된다. 오프라인 단행본 출판사업도 지원받는다.

장흥기 천연염색문화관은 "천연염색이라는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대중 친화적 장르인 만화로 제작, 관광기념품 개발과 지역홍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천연염색의 문화원형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국 천연염색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천년 비색' 강진청자 영국을 홀리다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영국 런던 한국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강진청자 유럽문화회전을 찾은 영국인들이 청자제작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청자칠보투각항로'(국보 95호) 등 강진 청자도공들이 옛 방식대로 구운 국보급 재현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강진군 제공)

'천수답'에 약용작물 특화단지 만든다

화순·장흥 등 전남 10곳... 300ha 시범조성

물부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전남지역의 '천수답'이 물이 많이 필요한 벼 재배 대신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하는 약용작물 특화단지로 탈바꿈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생약농업협동조합, 한약도매상, 한방산업단지, 천연자원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확대 대책협의회'를 갖고 도내 천수답 10곳을 약용작물 특화단지로 지정해 총 300ha를 시범조성하기로 했다.

저수지 등에서 물을 끌어올 수 없어 비에만 의존하는 논인 천수답 등 '수리불안 전답'은 전남지역에만 3천 200ha에 달하며 매년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남도는 작목전환을 통해 이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내를 내륙권, 내륙 산림권, 해안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내륙권은 식용과 약용이 가능한 작물을 중심으로 집중육성하기로 했다. 내륙 산림권은 꽃이 피는 약용작물 위주로 특화해 관광자원화하고, 해안

권은 함양 한약재 재배단지, 부인병 치료 한약재 재배단지 등 테마특화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화순 한약재유통센터를 우수한 약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장흥 한방복합테마공간 조성, 약용작물 소매 자급 조성, 한의사협회 등과의 저가매입 확대, 친환경 한약재 전문 취급업소 지정 등을 통해 도내 약용작물 차별화·고급화시킬 계획이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결과가 좋을 경우 2014년까지 40곳을 추가로 지정해 도내 전체 수리불안 전답 중 47%인 1천500ha를 약용작물 특화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최경필기자 cki@

서남해안 뱃길 이용 피서객 100만명 될 듯

경기침체로 국내관광 급증... 목포항만청 수송 대책 마련

전남 서남해안에서 다도해의 비경을 보며 시원한 여름을 보낼 뱃길 피서객이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19일 "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하계 피서철 특별수송기간 기상 여건이 좋으면 34개 항로(여객선 65척)의 뱃길 이용객이 사상 최대인 100만명(차량 21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별수송기간 뱃길 이용객은 89만명으로 특별수송 시작이후 가장 많았다.

목포항만청은 경기침체로 외국여행이 크게 줄면서 국내 최고의 여름 휴양지인 신안·홍도·완도·보길도, 진도 관내도 등을 찾는 관광객

이 급증하고 있어 올해 100만명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항만청은 여객선 수송능력을 330만명(차량 47만대)으로 최대한 늘려 피서객의 원활한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피서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신안 송공항과 지도·증도 등 운항거리 30분 미만의 항로에 대해서는 수시 운항체계를 구축해 혼잡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line@

농협 광주본부 상반기 실적평가 1위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종순)가 상반기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지역본부 가운데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종합업적 평가는 농산물판매, 신도발달, 고객관리, 수익·예산, 신용카드, 고객관리, 건전성, 영업점 실적 등 30개 항목을 평가했다. 정종순 광주지역본

부장은 "영업점 평가에서도 관내 25개 영업점 가운데 16개 사무소가 전국 1·2위를 기록했다"면서 "하반기에도 농산물판매와 중소기업 대출 등을 확대 추진해 연말결산 종합업적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

서해해경 해양오염 단속

완도·목포 등서 124건 적발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은 지난 6월 한 달간 완도·목포·군산·태안 해경서 관할 할·포구 일대에서 해양오염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해양환경사범 124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해청에 따르면 접안 잔고의 균열로 방커유 약 32t을 해상에 유출시킨다는 등 오염행위 5건, 의무 규정위반 19건, 행정질서위반 16건을 적발하고 경미한 위반 84건은 경고장 발부 등 행정지도를 했다.

이와 함께 서해 해경청은 선박이나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조선소 등에서 폐유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육상 순찰, 해상순찰, 항공순찰 등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진도 홍주 마시고 장학금도 내고

한병당 77원씩... 홍주 대중화·인재육성 일석이조

"진도 홍주 한 병을 마시면 77원의 인재육성 장학금을 내겠다."

19일 (사)진도 홍주연합회에 따르면 진도 홍주의 대중화를 위한 마케팅의 하나로 홍주 한 병을 마시면 77원을 진도군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내는 '진도 홍주 77 마케팅'을 하기로 했다.

이 마케팅은 지난 7월 '제 1회 홍주의 날'이 성황리에 끝난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이 순위 25위 오르는 등 대중적 관심이 높아져 홍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도 촉진하고 인재 육성에도 보탬을 주고자 마련됐다.

진도군 홍주 신활력사업소 관계

자는 "초콜릿과 사탕이 '벨런타인 데이'와 '화이트 데이'라는 상업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처럼 진도 홍주도 7월 7일 '진도 홍주의 날'을 계기로 전 국민이 사랑하는 술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랑했다.

한편, 진도 홍주는 2003년부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명품화에 성공해 미국·캐나다·중국·아프리카 가 나 등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다.

전통 민속유인 진도 홍주는 쌀과 보리를 원료로 증류해 만든 곡주에 한약재인 지초(芝草)를 사용, '지초주'라고도 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지역		소재지	면적(㎡)	건립기	최대가
전남	목포	신성동	152/46	2/4	1억9천1백
		해운동	112/34	1/3	9천4백
		신가동	105/32	1/1	7천2백
		신성동	96/30	1/3	8천1백
		수일동	102/31	1/1	7천
		진월동	102/31	9/5	6천1백
		진월동	155/47	1/1	1억1천5백
		진월동	158/48	1/1	8천1백
		진월동	109/33	1/3	7천7백
		진월동	116/32	9/2	6천7백
전남	목포	신성동	102/31	1/1	1억
		신성동	198/50	3/4	2억3천1백
		신성동	106/32	9/2	6천6백
		신성동	198/50	1/1	7천
		신성동	290/78	2/1	1억2천4백
		신성동	171/52	1/1	2억3천1백
		신성동	186/57	4/5	2억1천2백
		신성동	102/31	8/2	5천1백
		신성동	113/36	8/1	4천1백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전남	목포	신성동	152/46	1/1	1억9천1백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52/46	1/1	1억9천1백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전남	목포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
		신성동	122/37	1/1	1억2천